

미주 한인교회 '선교적 교회' 로 본질 회복 시급

풀러 코리안센터 "삶의 자리와 선교적 교회" 주제로 세미나 개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 '교회 내용과 분열', '교회의 영적 권위 추락', '차세대 단절', 미주 한인 교회가 직면한 위기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성장 우선주의', '대형화', '권위주의', '교과 주의' 등 교회 세속화의 문제 앞에 위기 극복을 넘어 미주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내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풀러 코리안센터는 지난달 31일,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과 '삶의 자리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적 교회'를 소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교회와 선교 기관의 사례를 통해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제 강의를 전한 장진대 성석환 교수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에 파송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냄을 받은 지역 사회의 현장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역할을 감당해



풀러 코리안센터가 주최한 '삶의 자리와 선교적 교회' 세미나

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 지역 사회에 파송받아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공동체

성석환 교수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건물에 모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며 "사회적 문제와 고독감, 소외감 등 미래 사회의 불안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사회의 필요에 능동적

으로 반응하는 선교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성 교수는 "교회가 사회 변혁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참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참여자로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 사회의 필요

에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회를 세우고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가 성장주의와 번영 신학으로 발전해 교회의 분열과 경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교회는 선교의 목표가 아닌 선교의 결과로 지역사회에서 공공선을 위한 선한 일에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 교회'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강연에 이어 "공동체의 안전과 선교적 기회 사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제를 한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는 의료 봉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사역을 소개했다.

LA 온누리교회는 한인타운에서 조금 벗어난 히스패닉 상권에 자리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만큼 교회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캔자스시티 슈퍼볼 우승 "하나님께 감사... 신앙이 최우선"

치프스 구단주 2014년부터 흥경기 전 팬들과 예배

2020 NFL 슈퍼볼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포티 나이너스를 31대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클락 헌트 구단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 보도했다. 치프스가 우승컵을 되찾아 온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50년 만이다.

이에 따르면, 헌트 구단주는 "우리 가족들과, 우승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

했다. 헌트 구단주는 최근 타임러모닝 텔레그래프(TMT)와의 인터뷰에서 "10살 때 캠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에게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자신의 영성을 개발해나가길 원한다. 미국프로 풋볼리그(NFL)에서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했다.

치프스 팀은 지역 내 사역자들과 미스포츠선교단체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와의 협력으로, 흥경기 전 팬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와 관련, 스포츠스펙트럼(The Sports Spectrum)은 "치프스 팀은 2014년부터 경기 전 예배를 드려왔으며, 현장에서 이러한 신앙적 행사를 갖는 것은 NFL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치프스의 쿼터백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마홈스(Patrick Mahomes)는 Fox4kc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항상 중요했다"면서 "치



환호하는 캔자스시티 선수들

프스 팀을 위해 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뛰기도 한다. 분명히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 그러나 경기

장 밖에서도 매 순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신앙심을 드러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회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일반대학교 California Arts University SEVIS I-20 발행

TRACS원회원 CHEA 미연방교육국 (USDE)인가 BPPE



California Arts University : 미국의 유명 음악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한인유일의 일반음악대학
주부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한국어 강의 / 저렴한 학비 / 풍성한 장학금 혜택 / 캠퍼스 24시간 개방

학 위 : 음악석사 (Master of Arts) 교수진 : UCLA, USC, N. Texas : Ph.D & DMA
 음악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

전공과목 : 실용음악 및 클래식 음악
 지휘/ 피아노(재즈피아노)/ 작곡/ 보컬(성악)/ 기타/ 드럼/ 베이스/ 관현악/ 미디, 컴퓨터 음악/ 레코딩 음악/

장 학 금 : 유학생 장학금 / 성적장학금 / 특기자 장학금 / 장애자 장학금 / 봉사자(교회, 선교회)장학금 / 목회자(선교사)가족 장학금 / 극빈자 장학금 / 커뮤니티 봉사 및 선교장학금 / 연주자 장학금 /

교수초빙: 석사이상, 박사 및 경력자, 연주자 우대합니다 (info@cauniv.edu)

Web: www.cauniv.edu / (213)700-7575 / (714)222-1110 / info@cauniv.edu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자유 대한민국과 복음 통일, 미국 영적 회복 위해 기도할 때”

세기모 서부지구 창립 감사예배 및 첫 기도회 가져



세계기도모임 서부지구 창립 감사예배 및 첫 기도회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기모 서부지구 총재 김영구 목사가 창립 감사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세계기도모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복음 통일, 미국의 영적 회복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의 손을 올릴 것입니다.”

세계기도모임(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 이하 세기모) 서부지구 창립 감사예배와 첫 기도회가 지난 2일,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있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북한 2천5백만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또 미국의 청교도 건국이념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세기모 서부지구 총재를 맡은 김영구 목사는 인사말에서 “탈북자 사역을 15년 동안 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한 정권인지 확실히 볼 수 있었다”며 “세기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흠뻑 흘려야 하는 세력들을 기도로 배격하고, 미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구 목사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800조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과 정치 성향을 초월해 기독교인

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전했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1부 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세기모 서부지구 LA지구장 강태광 목사가 대표 기도했으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계 8:1-5)이라는 제목으로 이상명 목사(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설교했다.

이상명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해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 문화의 강력한 도전 앞에, 거룩한 기도로 경건을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자”고 전했다.

2부 기도회는 김관진 목사(세기모 서부지구 자문위원장)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북한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와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를 위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가주 교계를 위해, 세기모 서부 지구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창립 축하와 권면은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직전회장), 조선환 장로(세기모 서부지구 자문위원장), 강신권 목사(세기모 서부지구 자문위원장), 이병만 장로(미주 한인재단 LA 회장)가 맡았다.

한편 세계기도모임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순수 기도모임으로 2016년 미국 샬럿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진행된 1차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 예루살렘, 남미 페루 등지에서 매년 개최돼, 올해는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피종진 목사, 박형우 목사, 이성철 목사를 주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기모는 2030년까지 230개 나라에서 7천 명의 기도자를 세우고, 20대와 30대 차세대 부흥과 7백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도 네트워크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미주 한인교회 ‘선교적 교회’ 로 본질 회복 시급” 이어]

LA 온누리교회는 교회의 안전보다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명령을 좇아 지역 사회와 협력해 교회 문을 열고 주변 이웃들을 감싸 안기로 했다. 온누리교회는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과 협력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히 교회 내 ‘유두고 미니스트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LA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엽 목사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교회의 정의에 어긋나 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역해야 한다”며 “선교적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LA 다운타운 아버지 창고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제로 LA 지역 노숙자 사역 사례를 발표한 이기영 목사는 “선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라며 “LA에서도 가장 배고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의의 나무 오병이어 사역은 2011년 미국 내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선교적 교회’ 사례를 발표하는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LA 다운타운 스킵 로우(Skid Row)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5천 명 분의 식사를 나누며 시작됐다.

현재는 트레이더 조를 포함한 여러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후원받아 분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 사회보장, 가족과의 연락, 정부혜택 등 주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나무 사역은 멕시코와 브라질, 볼리비아까지 이어져 음식 나눔과 고아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1-20 자격신청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3

“멕시코 목회자 비전 투어를 다녀오다”

필자가 섬기는 실크 웨이브 미션에서 행사용으로 사용하려고 장만했던 새 상품의 티셔츠들과 도네이션 받은 새 아동용 옷가지들을 멕시코 빨라공동체에 전달하기 위해 1박 2일로 다녀왔다. 특별히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함께 동역하고 있는 3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했다. 3분 다 각각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참여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선교비전이 강한 목회자들이다. 필자가 선교지를 찾는다 소식을 듣고 새 선교지에 대한 기대로 같이 참여하자 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한분이 “이번 우리 여행은 새로운 선교지를 경험하는 여행이니 비전투어로 합시다.”, “거창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4명이 목회자 비전투어를 하였다. 급하게 결정해서 가게 되어 많은 준비를 못하였지만 한분은 선교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공 10개, 한분은 프린트, 유에스비 겸용 카메라 20세트, 한분은 오가는 교통비를 담당하며 의기투합하였다. 가는 동안의 7시간 남짓 우리는 서로 돌아가며 그간의 자신들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한 일종의 선교 보고회를 은혜롭게 나누었다. 아멘, 아멘이 계속 터지면서 우리들의 선교 보고회는 멕시코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하나의 작은 선교부흥회가 되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루 온종일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돌보아주는 사역만도 큰 일인데 오후 늦은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6 가정씩 이웃을 방문 심방하는 이 선교사님 내외와 동역 사역자들의 헌신에 고개가 숙여졌다. 그렇게 저녁 무렵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와 숙소에서 식사를 한 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을 포함한 온 식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부인 조지혜 선교사의 찬양인도로 이주혁 선교사의 말씀 그리고 합심기도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비전과 은혜를 나누었는지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났다.

다음 날 아침 5시 기상이다. 이미 한국에서 오신 은퇴목사님 내외분의 수고로 가스로 달구어지는 큰 솥 안에는 150인분의 커피가 끓고 있었다. 전날 미리 준비한 아침 식사용 다과가 비닐 패키지로 준비되어 있었다. 끓는 커피를 대형 보온 통 2개에 나누어 가득 담고 차량 안에 접이 테이블을 싣고 그렇게 마을 안에 있는 버스 정류소 앞으로 캄캄한 새벽길에 나섰다. 5시 40분쯤 도착하니 이미 농장 가는 수송차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급히 테이블을 길 복판에 띄우고 커피통과 다과 박스 등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새벽기도와 금송 사역을 동시에 시작했다. 찬양과 기도가 끝나 후 주변에 모인 노동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올 때 ‘헤수스 데 아미’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그 추운 새벽바람 속에서 떨던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였다. 그렇게 농장으로 나갈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와 다과가 모두 동날 때까지 우리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날마다 감당하고 있었다. 이 사역을 이주혁 선교사는 “모닝 글로리”사역이라 했다.(계속)

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신종 바이러스와 페스트의 교훈!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기세를 볼 때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와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역사상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천연두, 황열 그리고 흑사병 등이 세계사를 바꾼 대형 전염병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은 전쟁의 승패나 사회구조를 흔들어 놓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염병과 투쟁하며 백신과 항생제라는 무기를 얻은 인간이 전염병에 일시적으로 우위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으로 또 공포에 떠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근자에 등장했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조류 독감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모두 지구촌을 강타한 전염병들입니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장편 ‘페스트’는 유럽을 강타했던 무서운 전염병 페스트와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설은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 “오랑”시에 의사 리외가 죽은 뒤 한 마리를 발견하고 놀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오랑시 곳곳에서 쥐의 시체가 무더기로 나오더니 시민들이 무더기로 죽어 나갑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랑시는 폐쇄되었습니다.

페스트로 도시가 폐허가 되어 가는데도 공무원들은 사태 파악을 못합니다. 안일한 공무원들은 죽은 쥐들을 수거해 소각하는 단순한 일만 합니다. 페스트는 오랑시에 장악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 대처로 페스트를 극복합니다. 소설은 희망과 아쉬움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페스트라는 강력한 전염병을 극복하면서 네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를 이기는

지혜를 배웁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페스트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랑베르 기자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오랑 시로 취재차 나온 특파원입니다. 그는 파리에 두고 온 아내를 만나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탈출이 어렵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부두로 나가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페스트와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랑베르는 ‘혼자서 행복하다면 부끄러울 수 있다’며 오랑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괴로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 주는 것이 삶의 의미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깁니다.

둘째 의사 리외가 있습니다.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 오랑이 페스트의 열풍에 휘청거릴 때 그는 책임감과 사명감 넘치는 의사였습니다. 질병을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 당국의 대처에 분노한 의사 베르나르 리외가 항의하자 시 당국은 페스트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방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사 리외는 여행객 타루와 함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며 도시를 구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으로 페스트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셋째 여행객 타루입니다. 본 작품

에서 가장 난해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방황했던 타루는 여행객으로 오랑에 들렀습니다. 오랑이 타향이었지만 페스트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의용 보건의대를 조직해 페스트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의용 보건의대와 함께 페스트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웠던 타루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타루는 페스트를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오랑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파놀루 신부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페스트를 대합니다. 까뮈는 파놀루 신부가 페스트로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 신에 대해 야유를 보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파놀루 신부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며 기도해 주던 파놀루 신부는 고난과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 성직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페스트’를 통해서 절망과 고통에 항거하는 인간들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복의 참모습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이글에서 소개된 네 사람 모두 페스트를 대항해 싸우다가 행복을 누립니다. 페스트가 물러가고 일상으로 돌아간 장면에서 용기와 헌신으로 장식된 그들의 행복이 영롱히 빛나고 있었습니

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기승을 부려 온 지구촌이 요란합니다. 오늘날도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있고, 용기와 사명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머잖아 신종 바이러스 신드롬이 끝나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의 용기와 그들이 만들어고 만들어 가는 행복의 사연들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IN-CHRISTCC.ORG

밸리채플 MP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주인예교회 ICC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주일 2부 오후 1: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오전 10:00,
수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인삼의 보편화로 많은 이들이 건강 되찾고 유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삼 수경재배 방법 개발해 낸 황두현 대표와 그를 돕는 이호석 대표·이암 이사

새로운 작농법으로 인삼 농사의 신기원을 열어낸 인물이 있어 화제다. 프레이바이오 황두현 대표이사는 주로 노지 생산만 생각하던 인삼 농사를 수경으로, 그것도 효율·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해 내 “많은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레이바이오 황두현 대표이사가 새로 개발한 인삼 수경재배 작농법으로 생산물을 거둬낸 한 농가의 모습. ©프레이바이오 제공

인삼은 주로 노지재배가 이뤄지지만, 간혹 수경재배로 삼을 길러 내는 농가도 있었다. 그러나 각각 농약 혹은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노지재배는 지력 고갈로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그리고 수경재배는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었다.



사진 가운데가 프레이바이오 황두현 대표이사, 왼쪽이 황 대표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글로벌케이엠 이호석 대표이사, 오른쪽은 글로벌케이엠 이암 이사. ©이나래 기자

황 대표가 새로 개발한 수경재배 방법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고, 자연재해에 대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수경재배의 장점도 겸해 갖고 있다. 여기에 시설비가 획기적으로 적게 들고, 화학비료나 LED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강점도 있다.

인삼은 뿌리보다 잎 등에 사포닌 등 영양 성분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노지재배 인삼은 농약 때문에 줄기와 잎을 사용하지 못한 채 뿌리만을 사용하지만, 황 대표의 ‘수경재배인삼’은 뿌리와 줄기, 잎까지 모두 섭취 가능하기에 총 사포닌 성분이 월등히 많다고 했다.

황 대표의 수경재배 시설의 수확량 및 매출액도 월등한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인삼 재배 기간도 4주 내외로 확 줄었으며, 그는 자신이 개발한 수경재배 시설에 대해 “한국 유일의 노하우가 가미된 시설

이므로 타사와의 비교가 불가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방법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2018년도 새로운 수경재배 방법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처음에는 인삼을 기르는 데 16주나 걸렸지만, 지금은 4~5

주면 바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새 방법의 수경재배) 인삼의 보편화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히고, “많은 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재배자들도 늘어갈 것”이라며 “(새 방법의 수경재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황 대표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주)글로벌케이엠 이호석 대표이사는 “건강한 제품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밝히고, “과거 고려인삼은 세계적인 상품이였다”며 “다시 한번 인삼이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서양인들의 인삼에 대한 이미지는 ‘신비로운 것’ 그 뿐이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 인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브랜딩(rebranding)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며 “많은 시장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 미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다”고도 했다.

(주)글로벌케이엠 이암 이사도 “이 사업이 잘 된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던 선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 한다”고 밝히고, “제3국에 성경 등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수익의 1/10은 선교비로 책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코셔 미네랄 천일염

우리 몸에 모든 액체는 소금물이다. 이 액체가 얼마나 짜나 싱거우냐에 따라서 모든 질병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일례로 모든 암의 근원은 염증이고 염증의 근원은 세균입니다. 모든 세균은 입과 눈과 코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침도 짜고 눈물도 짜고 코 점막도 짠 것이다. 피, 눈물, 침, 땀, 소대변, 양수까지도 모든 액체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설정한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체가 설당물로 변해서 혈관을 막아 버린다. 물이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소금의 도움 없이는 맹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을 일으킨다. 변종 바이러스를 잡하면 염증물질이 쏟아져 나와 면역체계가 교란되는 이른바 사이트 카인 폭풍이 생겨 중증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우한 폐렴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다. 인체 간 감염도 확인된 상태다.

침방울 등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니 기침이 나면 즉시 천일염으로 가글하고 소금물을 마시면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아 해매던 만병

통치약이 바로 천일염이다. 소금은 소화작용, 염장 작용, 해독작용, 소염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삼투압 작용, 발열작용, 노폐물 제거 작용 등을 한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싱거워져서 살균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이다. 지구 상에 어떠한 바이러스도 소금물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들어가는 즉시 터져 죽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간수 0% 중금속 0% 미네랄 천일염으로 건강을 유지 및 회복할 수 있다.

문의: KOSHERMINERALSEASALT.COM



코셔 미네랄 천일염과 바자 그래스워트 파우더

Aqua-culture Ginseng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한 인삼(人蔘)

물에서 재배하는 수경재배인삼

수경재배 인삼 (Aqua-culture Ginseng) 이란?

인삼을 기존 방식처럼 노지에서 재배하지 않고 12 ~ 18개월 사이에 어린 삼(묘삼)을 수경재배 용기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공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삼의 총사포닌은 잎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노지 인삼은 농약문제로 인하여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경재배 인삼은 인삼 전체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뿌리부분만 섭취하는 노지 인삼 대비 훨씬 더 많은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백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F5 함유

320가지 잔류 농약검사 통과

면역체계 활성 항박테리아, 항암항상성유지 등 면역력 강화에 탁월

바이러스 증식 및 지방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사포닌 성분이 뿌리의 7배

수경 재배 인삼의 효과

1. 면역력 증대로 일상의 활력 증진
2.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3. 피로 개선
4. 항산화에 도움

NK 세포란?

NK세포는 자연 살해(Natural Killer)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일종이고 체내에 종양,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세포입니다. NK세포는 상대세포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혹은 외부세균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를 우리 몸의 1차 방어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 전이를 막는다는 것 이외에도 암이 재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질과 사명의 성과 1

디모데후서 4:1-8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생활의 기준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의 입장이 우리가 사는 목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조건을 더 잘 갖추어서 좀 더 행세하고 호화판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인 폐단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경하게 당부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입장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듣고도 못들은 척 하는 반응은 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다시 전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관리를 잘해서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보람이 있음으로 해서 뜨거운 여름날에도 곡식 가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목자의 수고도 양떼를 두고 같은 입장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나 그 수고의 고달픔이 가볍거나 무겁게 느껴지게 마련인 것은 가꾸는 대상의 반응의 모습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양떼들이 올바르게 전달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쓰임 받고, 축복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목자의 수고와 피곤함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성과가 희박할 때 목자의 수고는 이중으로 고달픔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警責 타이르고 꾸짖다)하러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하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칭 사자(使者)가 있다면 그는 그 양떼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양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보다 자기에게 유일한 대상으로 가꾸어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는 그 목회하는 목적과 기준에 따라 판이하게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성령에 부딪혀서 양심이 깨어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심령은 은혜가 갈급해져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은 육신의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기다리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볼 생각을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으로 착각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위로나 칭찬듣기를 즐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날같이 썩은 양심을 도려내고 그 뿌리까지 잘라내어 주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심령이 부셔지고 깨어져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지적과 책망 속에서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기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도 다시는 그같은 불행의 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신앙 인격적 의지로 진리에 입각한 신앙인생을 과감히 새 출발해야 교회에 왔었고 은혜 받은 예배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 중심의 하늘 뜻에 기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꿈을 고집하기 위해 잘못 다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3절에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도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귀가 가렵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깨달음도, 부딪힘도 자극도 부끄러움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양심적으로는 의식이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예수님이 묶어준 관계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편 처지 따라서 자기 사욕을 좇을 수 있는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됩니다. 우리는 목회하면서 항상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명령과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경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비뚤어진 생각을 채워줄 다른 스승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지금의 신세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14-17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중략)...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신임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러한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조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를 좇는 것이겠습니까? 신앙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적가치 본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소망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헛 다닌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하고 그 분에게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맡아 주셔야만 구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그 뜻을 좇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1부터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사명자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예수님을 애써 증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마 3:5-6)"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보장받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의 말씀에 부딪쳐서 회개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얻을 문턱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중략)...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 3:7-10)"한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에 젖어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구원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6-39에 보면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중략)...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했습니다. 이것은 바른교훈의 진리에 양심이 허물어지고 최악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중략)...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위력이 있었고 감동과 회개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부딪쳐 깨어지고 부셔져서 성령을 받아 한 번에 삼천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54를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했습니다. 똑같은 바른 교훈의 진리말씀을 듣고 부딪힌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회개역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이 더욱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중략)...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행 7:55-58)"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귀를 막았고 이를 갈며 자신들을 부끄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화가 나서 결국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사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때려 죽이고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책을 받고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은 바른 교훈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썩어 들어가는 죄악에 찌든 심령을 부스러뜨려서 구원시키기 위한 사랑의 권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47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했습니다. 잠언 29:1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했습니다. 목이 굳다는 것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2:5에는 "다만 네 고집과...(중략)...진노를 내게 쌓는도다"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서둘러 최악의 근성이 뿌리까지 뽑혀지는 회개로 바른 교훈에 입각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꾸어 영과 육과 생활에까지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보장의 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故 서미수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셨던 하나님의 사람 서미수 목사님, 목사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편히 쉬십시오.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故 서미수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HAPPY NEW YEAR
202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유민호 신임 회장 취임



2020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회장 이.취임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는 지난 1일, 로텍스 호텔 1층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유민호 신임 회장은 “미주 지역 사회에 더욱 풍성한 크리스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임사를 전한 정지운 전 회장은 “젊은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롭고 활기차게 발전하는 크리스찬문인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지운 목사의 사회로 최학량 목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새 생명의 빛”이라며 “지구촌에 온갖 질병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크리스찬 문인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날 크리스찬문인협회는 기독교 뉴스 LA 지사장 김창호 목사와 김운영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소망소사이어티 “아프리카 차드에 생명을 전해요”

오는 10일(월) 제5차 차드 비전트립 참가자 파송예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오는 15일(토)부터 22일(토)까지 제5차 차드 비전트립을 진행한다.

아프리카 내륙 중앙에 위치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차드에서 생명 살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는 우물파기 사업, 학교 세우기 사업, 가정 결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유분자 이사장은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차드는 말라리아와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210년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와 함께 우물 파기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237개의 우물을 파고, 2015년부터는 소망소사이어티 단독으로 꾸준히 우물 파기 활동을 펼쳐 407개채의 우물 후원금을 전달받아 차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5차 차드 비전트립은 400번째 우물을 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2019년에 완공된 5번째의 학교를 방문해 배움을 통해 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만들어진 400여 개의 소망우물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제5차 차드 비전트립 참가자를 위한 파송예배를 오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소망홀(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 90630)에서 갖는다. 문의 562-977-4580



소망소사이어티가 아프리카 차드에서 진행한 제4차 비전 트립

동을 펼쳐 407개채의 우물 후원금을 전달받아 차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5차 차드 비전트립은 400번째 우물을 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2019년에 완공된 5번째의 학교를 방문해 배움을 통해 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만들어진 400여 개의 소망우물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제5차 차드 비전트립 참가자를 위한 파송예배를 오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소망홀(5836 Corporate Ave. #110, Cypress, CA 90630)에서 갖는다. 문의 562-977-4580

뉴저지 소망의교회 선우 권 목사 초청 부흥집회



선우 권 목사

세종(주일)까지 뉴저지 소망의교회(담임 정은수 목사)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축복권이 단단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선우 목사는 8년 전 한국 세종시에 상가 20평을 얻어 교회 개척 후 2천 명의 성도로 급성장한 비결

간증을 비롯해 기도, 전도 훈련, 바나바 사역, 제자 훈련, 영성훈련, 예배자 훈련 등 세종은누리교회의 성장 비결을 전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오후 1시 30분은 제직사 미나로 진행된다. 문의 201-952-8291(뉴저지 소망의교회)

이승희 목사 형 이문희 장로, PCUSA 총회장 출마

“동성훈 인정하는 법 개정 반대 헌의”

예장 통합 중경총회장인 이승희 목사(연동교회 원로)의 형인 이문희 장로(74, 미국 이름 Moon Lee)가 미국장로교(PCUSA) 제224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장로는 지난달 23일 미국인 샌드라 헤드릭(여) 목사와 함께 PCUSA 사무실에서 후보로 등록했다.

이 장로는 특히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시 이를 반대하는 헌의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해 발의했다고 한다.

형의 출마에 대해 동생인 이승희 목사는 “(형이) 동성에 문제 등 미국 장로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심리학자로서 일반 학계에서도 실력 있는 저명

he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seek election as the 224th General Assembly (2020) of the S.A.). Moon Lee, a ruling elder from the west Coast, and Alexandra “Sandra” Hedrick and pastor from the Presbytery of St. They are the first to seek election jointly. Lee has served as a ruling elder in presbyteries: New York City, Eastern Northwest Coast. He has served as stated clerk, chairperson/moderator of the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mission



Sandra Hedrick and Moon Lee are running as Co-Moderators of the 224th General Assembly. —Photo provided.

한 학자로서 활동해왔다”고 밝혔고 이 매체는 전했다. PCUSA는 오는 6월 20일 볼티모어에서 제224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총회장 선거를 치른다. 만

약 이 장로가 당선되면 지난 2000년故 이승만 목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총회장 탄생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I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복음은 복음일 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단의 복미선교부(NAMB)가 발행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설탕을 바를 필요가 있는가?” (Do We Sugarcoat the Gospel?) 도나스나 빵에 설탕 바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때 맛있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설탕 발린 것을 좋아합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그러나 과연 복음에도 설탕 발림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쉽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빛깔도 좋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달콤한 설탕을 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 땅의 문화 코드로 잘 포장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프로치가 잘못 되었다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은, 포장을 멋있게 꾸미느라 내용물을 부실하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가능하면 죄에 대한 설교는 피하라”는 강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므로 그런 설교보다는 행복을 약속하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온다는 요지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을 모으

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면, 그런 어프로치는 위험합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며, 영혼의 근본 치유없이 어떻게 행복이 보장되었습니까? 복음은 멋진 포장과 달콤함으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보다는 그들의 근본 아픔을 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비웃고, 세상 문화가 그것을 거부해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FAITH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위한 이 소중한 사역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브랜드

지난주, 존 웨인 공항에서 시큐리티 체크를 위해 재킷을 벗고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고 엑스레이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백인 아주머니가 어깨를 치며 “당신이 입고 있는 바지 브랜드가 뭐예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기자과 인터뷰를 할 때도 웬만한 질문에는 별로 당황하지 않는데 예쁜 백인 아주머니로부터 내가 입고 있는 바지가 어느 브랜드인지 묻는 질문을 받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주머니가 자기가 작업을 거는 것이 아님을 예들려 밝히는 듯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바지를 남편에게 사주고 싶어서요.” 평소 애무 바지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는 나에게 지금 입은 바지 브랜드를 물으니, 당장 확인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문득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바지를 샀던 기억이 나서 한국 제품(Made in Korea)이라고 했더니, 받아 적은 뒤에 엄지 척을 하면서 “당신도 바지만큼이나 멋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년 후면 환갑을 맞을 나이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그리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 제품이 정말 좋다며 국위 선양까지 한 것 같아서 괜히 우쭐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갈 때도 이 바지만 입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뢰아에 들렀을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more noble)’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도시, 한 마을의 분위기, 그곳의 사람들에서 풍겨 나오는 품격,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격의 브랜드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평생 살면서 수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면 말 한 마디에도 그분의 품격이 남다

르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풍기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악수와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태도에도 뭐라 말할 수 없는 ‘더 신사적(more noble)’인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 모여 한 교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문자를 처음 대하는 모습,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모습, 성가대 원들이 연습하는 모습,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예배 후 식당 앞에 줄 서는 모습과 주차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손뼉치며 찬양하는 모습, 진지하게 메시지를 듣는 자세 등 그 교회의 품격을 읽을 수 있는 리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느 공적인 모임에서 여러 분을 보고 “저분의 말하는 모습이나 남을 배려하며 에티켓을 지키는 모습이 꼭 베델교회에 갔을 때 느꼈던 분위기가 같아.”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혹시 어느 날 공항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이 입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베델 제품(Made in Bethel)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답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봉사자

김광중 씨는 충남 은산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그는 2013년 죽을 뻔한 사고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전기공인 그는 8m 높이의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전선에 감전되어 추락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뼈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순간 당시에는 허가 말리고 온 몸이 뻘뻘하게 굳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는데, 이처럼 살려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김 집사님은 원래 술, 담배를 좋아하고 ‘돈 많이 벌여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불신자였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 성탄절에 나가 본 게 다였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막내아들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입니다.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는데, 그는 아들의 청각장애에 관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습니다. 그는 비로소 “돈을 쫓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달란트를 기부하여 14년 동안 농촌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중에 안수집사도 되었고, 전기설비 기술자인 김 집사는 “사랑의 봉사단”을 이끌며 전기와 관련된 일은 물론 무엇이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재능을 기부합니다.

김 집사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전의 자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전도하는 것 보다는 봉사와 섬김부터 시작하였고 이것이 귀중한 틈을 형성하였습니다.

전등 갈기, 고장 난 보일러 고치기 등을 하면서, 수선팀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고독한 마음도 달래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은 여유

있는 삶에서 나오는 배움이 아니라,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라 더 값지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단의 사역은 현재 해외 선교로까지 확대되어 해외선교지에서도 집지기, 수리 등의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와 섬김의 아름다운 결실은 그의 가정에서도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3급인 막내아들은 현재 비장애인 과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치유가 되어, 이제는 일반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재활 훈련에 매진하던 엄마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수화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장애가 부모님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가운데에도 고난을 넘어 은혜를 보여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많은 기도팀원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내하거나 이미 고난에서 치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봉사자를 택하는 공동의회를 기다리며, 구름같이 허다한 교회의 봉사자들이 직분자로 세움 받을 기도합니다.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허러 오세요

“이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용에 한함.

₩10,500
\$5,900
TAX 및 배달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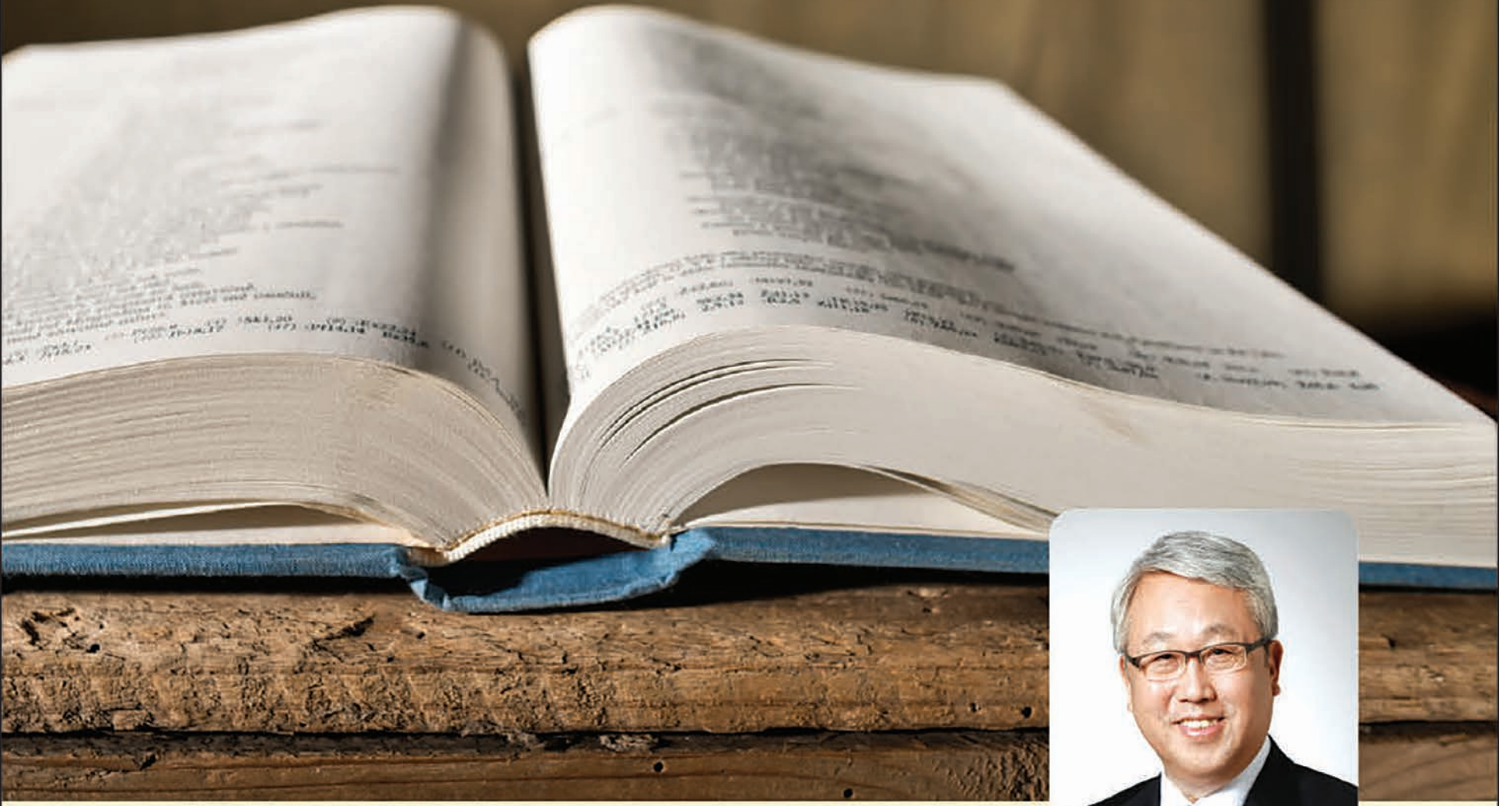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P · R · E · A · C · H · I · N · G C · L · I · N · I · C

2020년 포스트모던 시대의

강해설교클리닉 및 부흥회

이동원 목사 보너스 강의: 설교자를 위한 사모의 바람직한 역할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GMN 대표
지구촌교회

-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8PM - 26일(목) 12PM
- 장 소** : LA 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강 사**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특강강사** : 박성근 목사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 대 상** :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 등록비** : 일인당 \$150 / 부부 \$200 (2월20일까지 등록시 일인당 \$130 부부 \$180)
(선교사/신학생은 일인당 \$100) (점심 및 교재 포함)
(payable to - Preaching World)
- 숙 박** : Rotex Plaza Hotel - 호텔은 2인 1실 기준으로 일인당 50불 (아침식사와 택스 포함)
(등록비와는 별도 - 개별적으로 예약, Tel. 323-734-1001)
- 부흥회주제** :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룯기의 로맨스
* 3/23(월) / 8PM 고통의 치유 (룯기 1:20)
* 3/24(화) / 8PM 은혜의 새 아침 (룯기 2:13)
* 3/25(수) / 8PM 찬송의 드라마 (룯기 4:14)
- 문의** :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404) 579-4570 / revkwon21@gmail.com
심윤수 목사 (미주침례신문 사장)
(678) 677-9578 / pysshim@gmail.com

공동주최 : 프리칭월드 / 미주침례신문

청교도 이민 400주년 |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2편>



플리머스 락. 1620년 <메이플라워호> 를 타고 플리머스(매사추세츠주)에 상륙했을 때, 최초로 밟았다고 전해지는 바위



언덕에서 바라본 메이플라워호 항구 전경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배경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를 자기 손에 넣지 않으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영주들이 가진 교권을 감독들에게 돌려주어서 교권을 중앙 집권화 하여 영국을 다스릴 계획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귀족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고위층들은 여왕의 교회 정책을 비판했고, 오히려 종교 개혁자들을 후원하게 되었다. 여왕과 귀족들 사이의 갈등은 개혁자들에게 큰 기회였다. <까다로운 사람들>(Precisians)이 보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대륙에 피신 중이던 개혁자 약 800명은 이 기회를 호기로 믿고 귀국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에 남은 가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성호를 긋는 행위, 견신례, 성찬 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성자들의 날을 기념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개혁운동은 <존 후퍼>에 의해 야기된 복장 논쟁으로 이어졌다. 사제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옷으로 신분을 구별하는 것이며, 이것은 만인제사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복장 논쟁이 큰 호응을 일으키며 <까다로운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위협을 느끼고, <매튜 파커> 캔터베리 대주교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여왕은 대주교를 동원하여 청교도를 박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영국의 의회를 움직여서,

의회를 통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목회지에서 쫓겨났으며, 대륙으로 피신한 자들도 많았다. 의회를 통한 개혁의 시도도 실패했다.

1575년, <매튜 파커>에 이어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른 <그린달>은 청교도가 아니면서, 오히려 개혁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교황주의자들을 박해하고, 교권남용을 막고자 했으며, 특히 목회에서 설교를 중시하고 장려했다. <파커>가 금지했던 <제네바 성경>의 번역을 허가했으며, 특별히 청교도들의 설교 모임운동을 장려했다. 청교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듯하였으나, 하지만 이것도 여왕에 의하여 중지당하고 말았다.

이어서 1583년에 <존 위기프트>가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르자, 그는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뿌리 뽑기로 결심하고, 수많은 청교도를 고등종교법원에 세웠다. 이에 대하여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교회에서 감독주의를 제거하고자 나섰다. 하지만, 1588년 영국의 함대가 도버 해협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자, 여유를 얻은 여왕의 청교도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박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를 통한 개혁이 불발되고 난 후, 청교도들은 설교운동으로 개혁을 밀고 나아갔다. 박해 속에서도 청교도 목사들은 영국의 전역으로 나아가서 설교하여, 청교도의 영향력은 점차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

었다.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의 호칭으로 영국의 왕을 겸하게 되었다. 이제 청교도들은 새 왕에게 기대를 걸었다. 영국 전역에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포함한 1000여명의 청교도들이 <천인의 청원>(Millenary Petition)을 왕에게 제출하여, 영국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누더기'를 없애고 교회를 개혁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604년에 <햄턴 코트> 회의가 열렸다. 잘 진행되던 회의가, 교회정치 문제에 이르자 왕이 감독주의를 고집하여, 회의는 결렬됐다. 이어서 같은 해에 대주교에 오른 <리처드 벅크로프트>는 고등종교법원을 열고 청교도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청교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수많은 투옥과 협박과 고문과 화형과 순교와 도피가 모두 헛수고였는가'하는, '과연 우리가 영국 국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여 우리가 원하는 성경적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가'하는 고민이었다.

시대의 고민은 행동을 불렀다.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난 것이다. 교권을 강조하며, 중앙집권적 교권을 고집하는 감독주의 운동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분리주의 운동은 영

국 국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운동이었다.

적은 무리의 청교도들이 1607년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스크루비>에서 새로운 교회, 즉 분리주의자 교회를 시작하였다. <분리주의 운동>은 이미 16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분리주의 사상 때문에 분리주의자 <헨리 배로우>와 <존 그린우드>는 1593년 처형되었고, <프린시스 존슨>은 투옥되었다가 1592년에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 <존슨>은 분리주의자로 구성된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1597년에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갔다. <세인트 로렌스 강> 근처를 탐색하였으나 정착에 실패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분리주의자 교회를 세웠다. <스크루비>의 분리주의 교회도 투옥되거나 고등종교법원에 불려갔다.

살 길은 영국을 벗어나서, 영국 정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 외에는 없었다. 비밀리에 이민을 계획했으나, 발각되었고, 모두가 30일 구류 처분과 재산을 압류 당했다. 결국 살 길은 이민 외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1608년 <암스테르담>으로 떠났다가, <라이덴>으로 옮겼다. 네덜란드에서 이민자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몹시 궁색했다. 가장 잘 사는 이민자의 생활이 영국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보다 못했다. 자녀들의 교육도 문제가 많았다. 다시 분리주의자들은 심각한 현실 문제에 봉착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일단 영국으로 돌아왔다. 결론은 영국 왕과 국교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했다. 갈 곳은 신대륙뿐이었다. 마침내 신대륙으로 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참고 문헌

1.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2. 김의환, 김의환 전집 1 기독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8)
3. 오덕교, 종교개혁사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14)



박종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 목사
WIW Ministry 사역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일보와 WI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트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519

+ 항공요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99

+ 항공요금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WIW Ministr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공미보고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만 사그떨어지 영구수리만 언제든 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싱싱여행클럽 추억만들기** **코러스투어클럽 Korus Tour Club**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카바존 아울렛” 여행편

지명	시간	2월 22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LA	08:30	-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기독교일보 집결 및 출발(월셔BL+월셔PL)	대형 고급 버스
조슈아 트리 히바치 뷔페	11:00 12:30	-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투어] - 관광 후 식당으로 이동 및 도착 후 중식	
카바존 아울렛	14:00 16:00	- 카바존 아울렛 도착 및 [아울렛 쇼핑] - 관광 후 로스앤젤레스로 출발	중식 : 히바치 뷔페
LA	18:00	- 기독교일보사 도착 및 해산	

포함 사항 - 국립공원 입장료, 버스 요금, 히바치 뷔페 식사 요금, 제반적인 비용 SVC일체.
 불 포함 사항 - 선택관광 투어(케이볼카) \$25, 모든 팁(기사,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99
 팁(\$10) 별도

문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카바존 아울렛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행위 중독과 탈출**

‘사탄의 덫’ 각종 중독, 그리스도인들의 해결 방안은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덤 알터 | 홍지수 역
부키 | 420쪽

자기 몸보다
휴대폰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테크놀로지 시대
새로운 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독법을 제시한다

새 메일이 도착하면
얼마 만에 열어 볼까?
답은 '6초!'
메일 정리에 쓰는 시간은?
'근무 시간 중 4분의1!'
메일 확인 횟수는?
'1시간에 36번!'

스마트워치로 점점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깜짝 세일에 하업없이
새로 고침을 누른다.
인스타그램에 수없이
사진을 올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못 산다.
심하면 공포까지 느낀다.
휴대폰이 망가지느니 차라리
내 몸이 다치는 게 낫다.

무엇이 당신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색하게 만드는가?

2010년 1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가 최고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구나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만은 절대로 아이패드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잡스만 그런 것이 아니다. 테크놀로지 업계 거물들도 자녀들에게 비슷한 제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중독 물질에 절대 취하지 마라' 원칙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당혹스러운 일이다.

사실 중독은 대개 물질보다는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간파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금지시킨 것은 중독 물질과는 다른 온갖 장점을 가진 그 기기의 매력에 아이들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중독 대상은 담배, 알코올, 마약이 전부였다. 하지만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소셜미디어, 휴대폰, 게임, 이메일, 온라인 쇼핑 등 대상이 한도 끝도 없다.

우리나라 중독자들이 910만 명이상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230만 명, 도박 중독 210만 명, 알코올 중독 210만 명, 성 중독 200만 명, 마약 중독 53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중독자들 중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앱 '모먼트(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를 개발한 케빈 폴시가 8,000명의 휴대폰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3시간, 1시간에 평균 세 번이나 휴대폰과 마주한다고 한다. 이는 깨어 있는 시간 중 4분의 1을 휴대폰과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로 따지면 100시간이고, 인간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평생 11년을 휴대폰 사용에 할애하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64%에 달한다. 심지어 휴대폰을 사용하고 곁에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노모포비아(nomophobia, 모바일 결핍 공포증)' 증상을 겪는 이들도 많다.

지금은 확실한 '디지털 중독'의 시대인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애덤 알터 교수가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애덤 알터는 뉴욕대학교 스티븐경 영대학원 마케팅 부교수이고 심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심리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BA 전문지 '포이츠 앤드 퀀츠(Poets and Quants)'가 뽑은 '세계 최고의 40세 이하 비즈니스 스쿨 교수 40인'에 선정되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 "테크놀로지 중독의 뿌리를 파헤친 책"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이 책은 중독 행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한다. 그런 행위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누가 그것을 조장하는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중독 유발에 이용된 과학 지식을 활용에 위험한 중독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압박을 '행위 중독'이라 명명하며, 이 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저자는 행위 중독에 관여하는 요소는 모두 여섯 가지라고 말한다. 첫째,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목표, 둘째, 뿌리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긍정적인 피드백, 셋째,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더 어려워지는 과제, 다섯째, 해소하고 싶지만 풀리지 않는 미결 상태, 여섯째, 강한 인간관계 등이다.

저자는 인간 욕구의 정곡을 찌르는 여섯 가지 요인이 행위 중독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다 말한다. 예를 들어 운동 앱은 열량, 걸음 수, 거리 등 운동을 수치화하고 매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압박 상태에 빠뜨린다. 또 SNS 게시물에서 '좋아요'는 그 숫자에 연연하게 만들며 게시물을 씬 없이 업로드해 사람들의 피드백을 갈구하게 한다. '피드백 중독'의 대표적인 '좋아요'를 두고 저자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마약'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각종 행위에 중독돼 있다는 것이다. 행위 중독은 술·담배 등 물질 중독처럼 해로운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원리가 똑같다. 문제는 '행위 중독'은 중독 대상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약물 중독보다 더 위험한 행위 중독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저자는 행위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먼저 지적한다. 하지만 "테크놀로지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며 나름대로의 해결

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독에서 벗어난 알코올 중독자 수백만 명은 아예 술집에 걸신도 하지 않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이메일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메일 주소 없이는 여행 비자를 발급받거나 구직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장 업무를 처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중독성 있는 테크놀로지는 중독성 있는 약물과 달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안은 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일부에만 중독성 있는 체험을 허용하고, 건전한 행위를 유발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행위 중독이 작동하는 방식을 터득하면 그러한 행위가 야기하는 해악을 완화하거나 오히려 유익한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원리를 학습에 적용할 수 있고, 운동에 중독되어 목표 달성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한다. "중독 체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대개 문화적 요인에 좌우된다. 우리 문화가 일과 게임과 기기 화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행위 중독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우리는 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직접 소통할 것이다."

중독은 교회 밖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김영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중독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철저히 강력하게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고, 덫이다."

사탄은 다양한 중독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다. 특히 행위 중독을 통해, 그것이 중독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 책에서 조근호 박사는 중독은

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전혀 탈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그런데 그 놀라운 방법은 '신', '위대한 힘', '묵상과 기도', '영적 각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조근호 박사는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12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무력함의 수용'이라고 말한다.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정이다.

이것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자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테크놀로지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심하다. 중독자임을 인정하면 회복의 길을 찾게 된다. 하지만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전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단계는 '의식적 접촉'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 접촉이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신과 접촉을 말한다. 중독자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신과 접촉하려고 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독의 문제는 갈수록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중독이라는 덫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

중독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교회의 문제다.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독의 늪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나눔의 실천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월드쉐어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이티 소망 학교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돕기(수리남)



홈 리스 사역 지원



양로 병원 지원활동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